안전 대책없는 '익스트림 스포츠'

나주 번지점프장 4월 운영 이후 점검 없어

시설물 설치 기준 없고 개인 보호장비 의존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애호가들이 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저 스포츠는 갈수록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안전을 담보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광주시와 '익스트림 스포츠' 동호회 등에 따르면 주 5일제 근무 및 여가생활 확대로 스릴을 맛볼 수 있는 각종 레저 스포츠인 '익스트림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동호회는 산악자전거·행글라이더·실내 암벽등반 등으로, 동호회 수만도 150개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개인 보호장비에만 의지한 채 위험스러운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산악자전거 동호회는 10개로, 회원 수만 5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원들은 무등산을 비롯한 제석산·짚봉산 등지에서 산악자전거를 타지만,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개인보호장비에 의지할 뿐 위험을 알리는 도로표지판 등 다른 안전장치는 없다. 이 때문에 단체로 움직일 때마다 등산객과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2~3건 정도 발생한다는 게 동호회측의 설명이다.

실내 암벽등반도 사정은 마찬가지. 광주에서 운영 중인 실내암벽등반장은 모두 3곳.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업종으로 분류돼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내 암벽등반장에는 15~20㎝의 공기매트가 깔려 있으나 시설물 설치 기준 등 정확한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지난 5일 나주의 유명 유원지에서 번지점프 줄이 끊어져 이용객이 숨진 사고도 번지점프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입증했다. 이 번지점프장은 지난 4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현행법상 유원시설과 체육시설은 관련 시설협회나 지자체 등에 의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만, 번지점프장은 건축법상 공작물로만 분류돼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부대의 유격시설 등 군 시설물 관리자들도 1년에 한 차례씩 2주간 로프·구조물 점검 방법 등의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만, 번지점프 등 생명을 담보로 한 시설물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또한 30m에 가까운 고층 구조물이지만, 신고업이라는 점 때문에 풍속 등 구조물 계산 등이 적용됐는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법외 문제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외면, 제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각종 익스트림 스포츠 지역의 지형지물을 사전에 파악하고 동호회 현황 등의 데이터베이스화, 관련단체와 간담회 등 소방안전교육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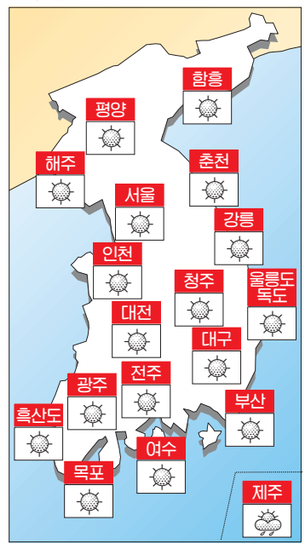
찜통더위 계속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8월 7일 (음 7월 7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22~33℃
목 포	구름 조금	22~31℃
여 수	구름 조금	24~30℃
완 도	구름 조금	22~32℃
구 례	구름 조금	21~34℃
해 남	구름 조금	21~32℃
장 흥	구름 조금	21~32℃
고 흥	구름 조금	22~31℃
순 천	구름 조금	20~34℃
영 광	구름 조금	19~32℃
진 도	구름 조금	24~33℃
전 주	구름 조금	20~33℃
남 원	구름 조금	19~33℃
흑산도	구름 조금	21~27℃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0.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0.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05:43 18:26 썰물〈 11:02 23:21
여 수 밀물〈 00:09 12:44 썰물〈 06:14 18:38

▲해뜸 05:46 ▲해짐 19:30 ▲달뜸 11:38 ▲달짐 22: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날 씨						
최저/최고	23/32	25/33	24/33	24/33	25/34	25/34

번지점프 운영자 장성서도 두차례 사고

2003·2005년에…로프 풀려 추락 등 2명 부상

나주의 한 휴양시설에서 발생한 추락사망사고와 관련, 업주 신모(37)씨가 운영하는 번지점프장에서 이전에도 두 차례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6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전날 나주에서 로프가 끊기면서 사망사고를 낸 문제의 번지점프의 운영자인 신모씨(37)가 지난 2003년, 2005년 장성의 모 관광농원에서도 이용객 추락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용객 이모(32)씨는 지난 2005년 장성 모 관광농원에 설치된 신씨의 번지점프장에서 번지점프를 하다 로프가 풀리면서 20m 아래 에어매트로 추락해 찰과상을 입었다.

앞서 2003년에는 김모(35)씨가 에어매트에 머리 등을 부딪혀 목 주위 인대가 늘어나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장성 번지점프대는 7년 전 호남 최초로 개설됐으며 높이 25m의 철구조물로 된 T자형으로 지난 5일 사고가 발생한 나주 번지점프대와 동일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시설주인 농원 측과 보상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계약(부지임대)을 해지하고 철거했다.

신씨는 장성에서 시설물을 철거한 뒤 지난 2006년 4월 광주시 북구 양산지구에 번지점프장을 확장 이전했으나 민원이 제기돼 곧바로 나주 J리조트로 자리를 옮겨 번지점프장을 운영중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수질 5년간 되레 나빠졌다

영산강·섬진강 등 평균 BOD 높아져

지자체와 환경당국의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의 수질은 지난 5년간 오히려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발간한 '환경질연감'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영산강 수계의 평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3.7㎎/ℓ 에서 4.7㎎/ℓ 로 높아졌다.

주요 측정 지점별로는 담양이 1.0에서 1.5로, 광주Ⅱ가 6.9에서 8.6으로, 영산포가 4.8에서 6.4로, 무안Ⅰ이 3.0에서 5.1로 각각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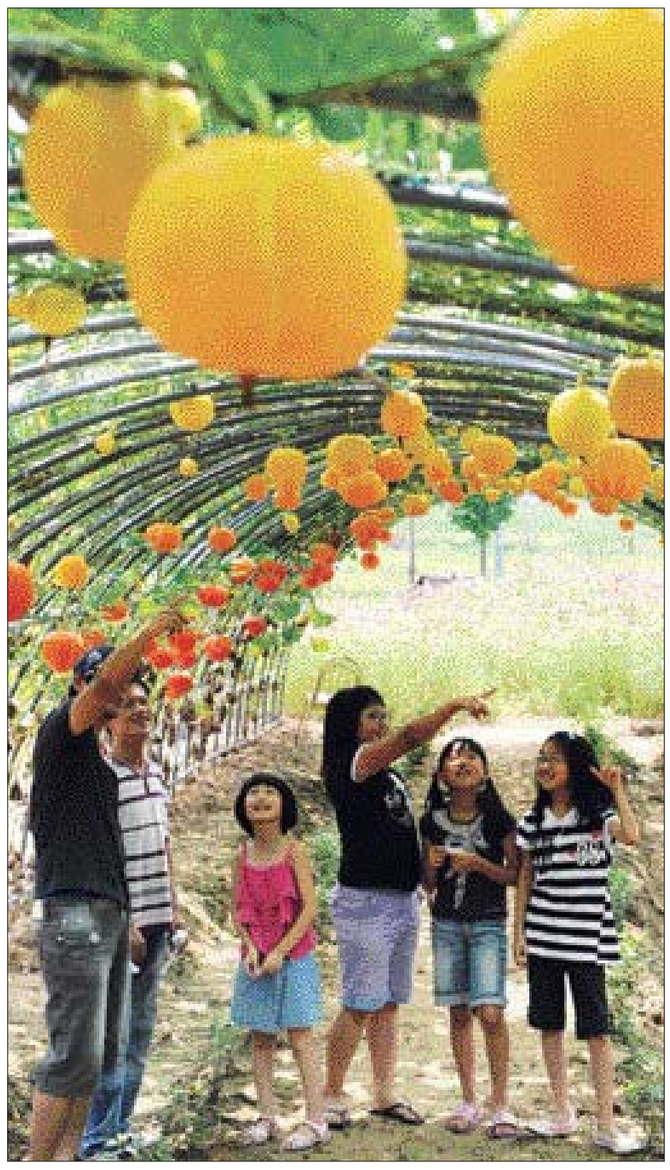
섬진강 역시 영산강보다는 덜하지만 수질이 나빠졌다. 섬진강 구례와 고달의 BOD는 2003년 1.0과 1.1에서 2007년 모두 1.3으로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주요 호수의 수질 역시 제자리 걸음이었다. 광주댐과 장성댐은 수질이 다소 개선됐지만 나주댐과 보성강댐은 오히려 수질이 악화됐다. 특히 심각한 수질 오염이 제기돼 온 영산호의 경우 BOD가 2003년 2.4에서 2005년 1.5로 나아졌지만 2007년 다시 2.4로 '원상복귀'했다.

한편 환경청 조사에서 광주·전남 지역에 내리는 비의 대부분이 산성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광주, 목포, 광양, 여수 등 광주·전남 4개 지역에 내린 비의 월별 pH(수소이온농도)값은 대부분 4~5에 머물렀다.

광주와 광양은 2개월, 목포는 3개월, 여수는 4개월씩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pH5.6 이하인 산성비가 내렸다. 또 이들 도시에 내린 비의 월별 pH값은 2006년에 비해 대체로 낮아져 산성도가 더욱 심화한 것으로 측정됐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오늘 立秋…영글어가는 단호박 입추(立秋)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구례군 산동면 테마공원에서 관광객들이 울긋불긋 영글어가는 단호박 터널을 걸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구례=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안 기름 방제 이번주 마무리

신안군 자은도 해상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기름찌꺼기 방제작업이 이번주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논란이 됐던 기름 유출량은 해경 조사 결과 2㎘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고발생 5일째인 이날 공무원과 소방대원, 군인 등 인력 1천308명이 투입돼 지도와 증도, 자은도, 임자도, 비금도 등 신안 5개 섬(읍·면) 7개 지구에서 막바지 방제작업을 벌였다.

이날 방제작업에는 차량 18대와 선박 22척이 동원돼 흡착포와 해양쓰레기, 오염모래 등 폐기물 6.5t을 수거했다. 지난 3일 이후 수거한 폐기물은 총 30.7t이며, 방제작업은 앞으로 2~3일 이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방제작업이 순조로워 주말 이후에는 우전과 둔장 등 해수욕장 입수 제한이 풀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이날 오후 3시께 목포항에 입항한 유조선 여명 7호에서 유출된 기름량을 측정한 결과, 여명 7호에 실려 있던 벙커C유 6~7㎘ 중 바다로 유입된 양은 2.017㎘인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18 어린이 체험학습 11월부터 가능

오는 11월부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5·18 체험학습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6일 "5·18묘지 내 역사의 문 지하 1층에 들어설 어린이체험학습관 설치공사가 10월 말 준공 목표로 4일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완료된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체험학습관은 '5·18 영상홀', '함께하는 5·18 세마당', '여기는 7080 대한민국', '5·18 기념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함께하는 5·18 세마당'은 어린이들이 3개로 나뉜 방을 옮겨가면서 5·18정신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여기는 7080 대한민국'은 민주화운동이 활발했던 70~80년대의 시대상황을 재현한다. 또 '5·18기념홀'은 5·18 구묘역과 신묘역을 영상으로 소개하며, 시나리오와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게임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5·18 정신과 민주주의에 관한 폭넓은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